

선생님의 사생애

작성일 : 2012. 8. 25.(토)

작성자 : 정수영

(수요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 중 앞으로 섭리에 1억 명, 10억 명씩 온다는 말씀에 큰 감동이 되면서 반드시 이 말씀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들이 진짜 모두 이뤄진 것을 보면서 선생님을 통해 주님께서 100% 역사하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격하며 순간 감사기도를 드릴 때 주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월명동의 104톤 바위, 성자 바위도
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들이니라.
내가 네 선생 통해 어릴 적 마을 형에게
104톤 바위 빼 갈 거라고 했다.
성자 바위도 하나님 뜻이 있어
네 선생 어릴 적에 그곳에 가서
나물도 캐고 들렀다 가는
사연의 장소 되게 한 것이다.
모두들 놀랍다고 했지!

(네! 예전엔 차도 다니지 않을 때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대요.)

내가 성지 땅에
천 년 동안 나의 증거자를 세운 것들이
선생과 사연 있는
저 돌들인 것이다.
네 선생 기도 굴에서 굶어가며
기도 생활 할 때 무어라 했더냐.

(네, 마을 형님에게 앞섰골을 가리키며 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올 거라고 했대요. 그리고 검은 차들이 뺑뺑하게 들어올 거라고 했대요. 그 형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추운 겨울 눈 쌓인 날 광산으로 쓰던 굴을 지나는데 굴속에 사람이 들어간 발자국은 있는데 나온 발자국이 없어 간첩인 줄 알고 몰래 들어가 봤는데 선생님이 그 곳에서 기도하

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선생님의 말씀을 인정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굴에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던 모습을 이야기하며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증거했대요. 그 이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앞섰골로 오고 많은 차들이 석막리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모두 놀라워해요. 그 옛날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래, 그 말들이

지금 모두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선생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내가 그를 통해 앞날을 얘기한 것이다.

(사람들이 선생님이 축지를 쓰며 다니셨던 것도 이야기 해 줬구요. 기도굴에서 감람산에서 기도생활 하신 이야기, 선생님이 기도해 주어서 병이 나은 이야기, 정신이 이상했던 사람이 선생님의 기도로 정신이 돌아온 이야기, 선생님이 시골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전도하실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선생님을 보며‘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가.’ 했대요.)

때가 되면 돌들도 외친다고 하지 않았냐.

성약시대의 부활의 때를 맞이하고

시대 독립을 하니

선생을 통해

그동안 나 성자가 역사해 왔던 것들을

그들로 본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도 저 조그만 산골짜기에

선생 홀로 기도하던 곳에

선생 말처럼 이리도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겠냐.

수레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자동차가 줄지어 온다고 하니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냐.

그러니 내가 그를 통해 역사한 것을

그들이 이제는 증거할 것이다.

(네 맞아요! 주님. 이제는 이곳에 선생님을 어릴 적부터 보아 왔던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왜 그렇게 기도생활하고 평범하지 않게 했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이 임해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아 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들은 선생님을 인정하고 입으로는 고백하지

만 자신의 삶의 주관에 빠져서 섭리사로 오지 못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요.)

패역한 세대다.

입술로는 나를 증거하나 진정 모르는 계지.

눈으로 보고 놀라지만

자신의 삶도, 자신의 터전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다.

마치 가나안도 좋지만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

(주님, 그들이 깨닫고 직접 선생님을 증거하면 좋을 텐데요.)

내가 그들을 통해 선생의 모습을 증거하니

그들의 증거를 증거하여라.

선생이 나 성자의 신부가 되고

시대 보낸 자로 뽑히기까지

그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냥 뽑은 내 신부가 아니다.

엄격히 그가 세운 조건이 있다.

그들은 땅의 사람들이라

육의 눈으로 보고 증거하지만

그 시대 내가 세운 자를 증거하기 위해

그들로 보게 했으며

선생의 성품과 삶을 모두 겪게 했다.

선생의 사생애는

그가 나의 몸이 되고

사명자가 되기까지의 증거 역사다.

만드시 선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알아서

시대 보낸 자를 온전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라.

증거의 역사는 너희들이 일으켜야 한다.

사도시대가 펼쳐졌다.

온전히 증거하여라.

너희도 선생의 삶을 본받아 외치어라.